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2016. 7. 14.(목) 10:0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예산정책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16. 7. 14.(목) 10:0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회예산정책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 프로그램

###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세균 | 국회의장

축사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10:30~12:00 세미나

사회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토론  
김준경 | 한국개발연구원장  
유병규 | 산업연구원장  
박형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장  
최경선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 목차

개회사 ..... 1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 4

정세균 | 국회의장

축 사 ..... 7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축 사 ..... 10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 사 ..... 13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축 사 ..... 16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19

#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제20대국회의 개원을 기념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조정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같이 하시지 못했지만 영상과 서면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계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미나의 토론을 맡아주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님, 유병규 산업연구원장님,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 또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소비, 투자와 같은 내수도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경제는 이제 ‘추세적 침체’ 혹은 ‘뉴 노멀’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성장잠재력 하락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그동안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준엄한 경제현실 하에서 개원한 제20대국회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경제를 통찰하고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제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기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잠재성장을 또한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사드배치 등의 외부적 변수들 또한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수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 문제의 해결이나 소득분배의 개선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기의 정책과 관습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력의 집중, 빈곤의 대물림, 일자리 창출 부진 등은 단편적인 대응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성장둔화와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 악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뉴노멀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 전인미답의 상황에서 제20대국회가 당면한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진일보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0대국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국회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회의장 정세균

# 축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 주관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및 재정관련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 중 하나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에 큰 보탬이 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근대화를 이룬 것은 물론 세계 10위권에 드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합니다.

또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지 임시방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야말로 시의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토론을 맡아주신 국책연구원장님, 언론계 논설위원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 축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제20대국회의 개원을 기념하여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준기 처장님을 비롯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가 오래 동안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이 고착화되는 소위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는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가 초래할 불확실성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도, 경제컨트론타워도 없다는 점입니다.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낙관론’과 ‘경제 비관론’을 오가는 오락가락 현실 인식으로 국민의 불안을 증대시키거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임시방편 땀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미래의 재정 여건 악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싶은 사회,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기회가 있는 사회, 성장의 대가가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축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를 준비하신 김준기 처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경제정책들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 충돌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져 갑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부, 그리고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재도약해야만 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의 목표도 달성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반 확보 등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감동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가 한국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결정하는 대내외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해법들을 찾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 개원기념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 축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먼저 제20대국회 개원을 맞아 마련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한치앞을 볼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조선업,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환경에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헬조선을 외치고, 어르신들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 노후절벽의 위협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은퇴 후 걱정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20대국회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님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님이 모두 참석하신 것은 이번 제20대국회가 정쟁에 몰두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제20대국회 개원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갤럽



#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6. 7.

42  
조사연차 42년  
callup

## 목 차

### I. 조사 개요

### II. 주요 조사 결과

1. 경제 성장률 하락 주요 요인 / 4p
2.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및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 6p
3. 분야별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완 정책 방안 / 8p
4. 구조조정 시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 여부 및 선행 필요 기업 자구책 / 10p
5. 현재 국가 채무 수준 진단 / 11p
6. 증세 필요 여부 및 증세 기능 우선순위 / 12p
7. 2017년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한 생각 / 13p



## 1.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

###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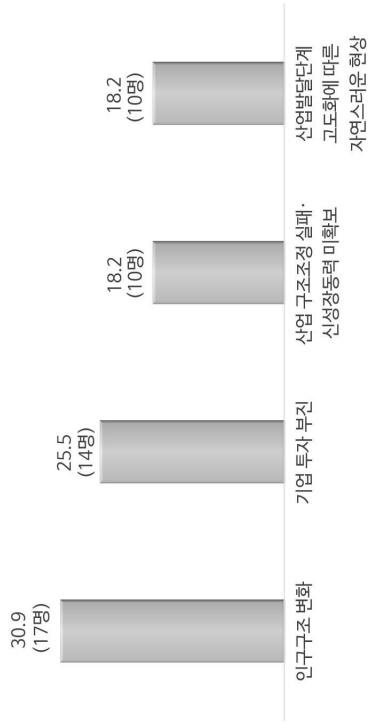
#### II. 주요 조사 결과

### 1 | 대내적 요인

- 전체 55명의 전문가 중 17명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꼽음(30.9%)
- 그 밖에 '기업의 투자 부진'(14명, 25.5%), '산업 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0명, 18.2%), '산업발달단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0명, 18.2%)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기타 의견
  - 노동시장 경직성
  - 청년·여성 고용 부진 등 고용 관련 요인
  - 양극화 확대
  - 사회갈등구조 등

1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대내적 요인(자유응답) (n=55)

(단위: %)



## 1.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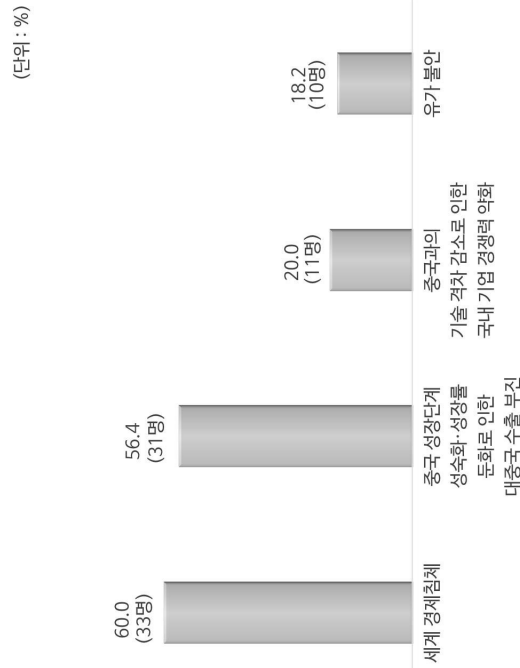
### I II

#### II. 주요 조사 결과

## 2 | 대외적 요인

- 전체 55명의 전문가 중 33명이 '세계 경제침체'를 꼽음(60.0%)
- 그 밖에 '중국의 성장단계 성숙화·성장을 둔화로 인한 대중국 수출 부진'(31명, 56.4%), '중국의 기술 격차 감소로 인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11명, 20.0%), '유가 불안'(10명, 18.2%)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기타 의견
  - 에너지로 인한 수출 부진
  - 전세계적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등

I 경제 성장을 하라 주요 요인-대외적 요인(자유응답) (n=55)



2.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및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시급한 정책

I II  
II. 주요 조사 결과

## 전문가들은 향후 저성장세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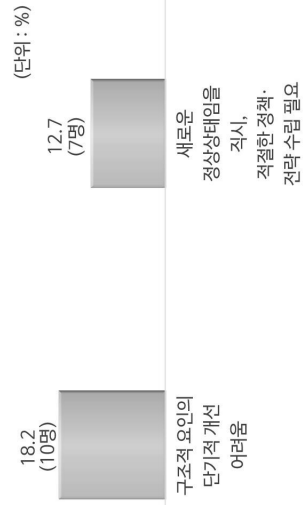
### 1 |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및 이유

- 본 조사에 응답한 55명의 전문가들 모두, 향후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락 요인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구조적 요인으로 단기적 방안을 통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10명, 18.2%)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성장세가 새로운 정상상태(뉴 노멀)임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7명, 12.7%)

#### |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n=55)



#### |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이유(자유응답)(n=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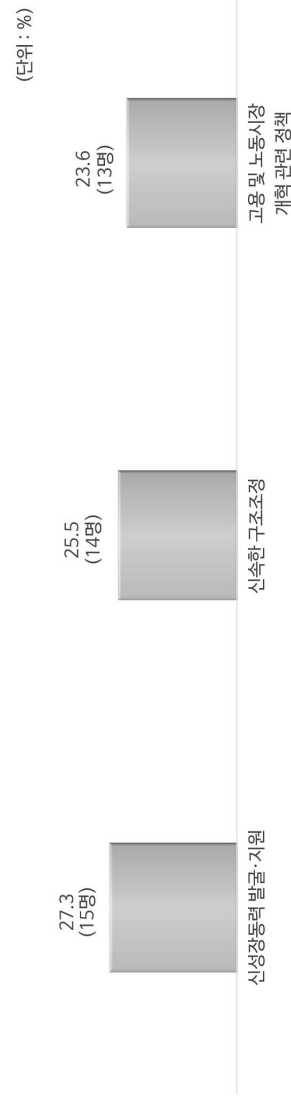
I II  
II. 주요 조사 결과

2. 저성장세 향후 지속 여부 및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시급한 정책

2 |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 ☉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15명, 27.3%)
- ☉ 부실·사양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14명, 25.5%)
- ☉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13명, 23.6%)

|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자유응답) (n=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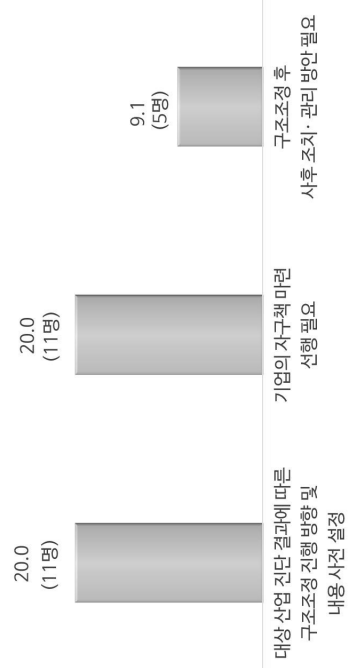
### 3. 분야별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안 정책 방안

#### II. 주요 조사 결과

## 1 |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 '구조조정 대상 산업 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방향 및 내용 사전 설정 중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구책 마련 선행 필요'를 꼽은 전문가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음(20.0%)
- 그 밖에 '구조조정 후 해당 산업 경쟁력 확보 및 대체 산업업 육성 방안 수립 등 사후 조치·관리 방안 필요'(5명, 9.1%)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기타 의견
  - '원샷법' 조항의 적절 집행 여부 관리
  - 장기적 기술·연구 지원
  -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 기업 간 업종 진입 전면 허용 및 원청-하청기업 간 배타적 독점계약 불법화

|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안 정책 방안  
-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자유응답)(n=5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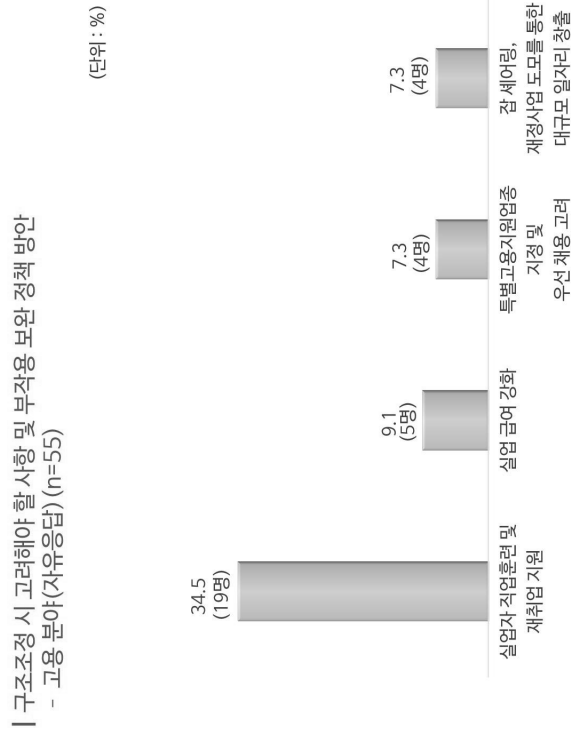


### 3. 분야별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부작용 보안 정책 방안

#### I II II. 주요 조사 결과

## 2 | 고용 분야

-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세부 의견으로는 '실업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꼽은 전문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음(34.5%)
- 그 밖에 '실업 급여 강화'(5명, 9.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우선 채용 고려'(4명, 7.3%) 등의 응답이 있었음
- 이외 '잡 셰어링(Job Sharing), 재정사업 도모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4명, 7.3%) 응답도 제시됨
- 기타 의견
  - 고용시장 동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4. 구조조정 시 정부 자금 지원 필요 여부 및 선행 필요 기업 자구책

I II

II.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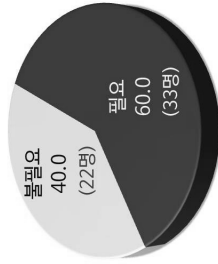
## 55명의 전문가 중 33명, 구조조정 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1 | 구조조정 시 정부 자금지원 필요 여부

- 55명의 전문가 중 33명(60.0%)은 구조조정 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명(40.0%)이었음

I 구조조정 시 정부 자금지원 필요 여부 (n=5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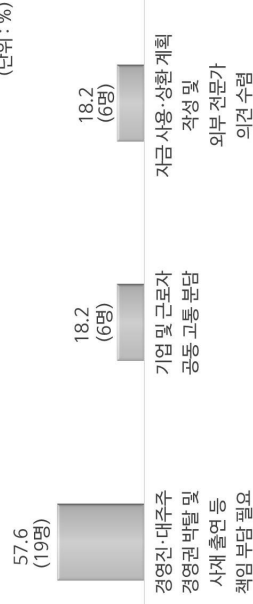


### 2 | 자금지원 시 선행되어야 할 기업의 자구책

- 자금이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3명의 전문가 중 19명(57.6%)은 자금지원 시 선행되어야 할 기업 자구책으로 '경영진·대주주 경영권 박탈 및 사채 출연 등 책임 부담 필요'를 꼽음
- 그 밖에 '기업 및 근로자 공동 고통 분담', '자금 사용·상환 계획 작성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각각 6명(18.2%) 응답됨

I 자금지원 시 선행되어야 할 기업의 자구책 (자유응답) (n=33)

(단위: %)



5. 현재 국가 채무 수준 진단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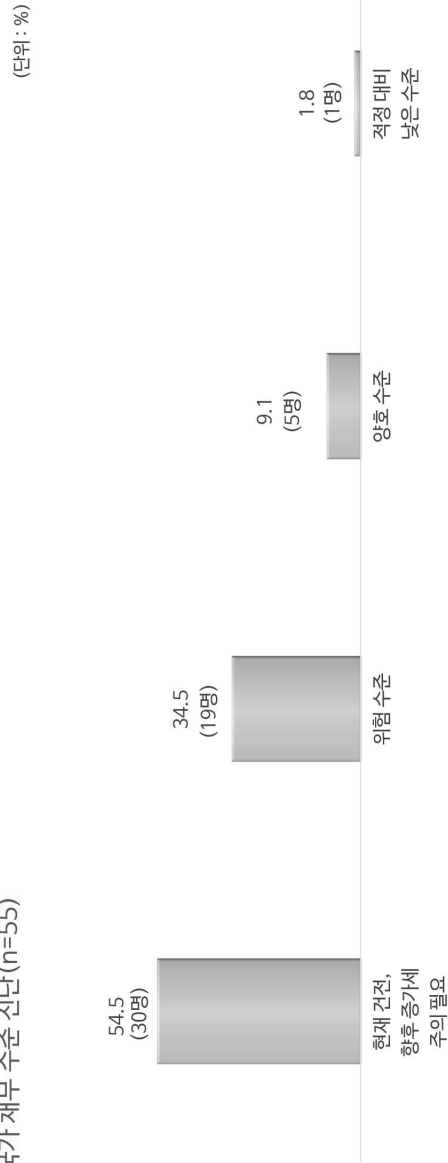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 55명의 전문가 중 30명, '현재 국가 채무 수준은 건전하나, 증가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

### 국가 채무 수준 진단

- 전체 55명 전문가 중 30명(54.5%)은 '현재 국가 채무 수준은 건전하나, 향후 증가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
- 현재 위험 수준이라는 응답은 19명(34.5%), 양호 수준은 5명(9.1%), 적정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명이었음

현재 국가 채무 수준 진단 (n=55)



6. 증세 필요 여부 및 증세 가능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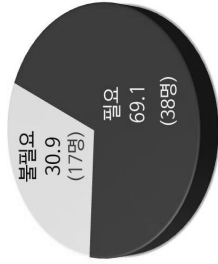
I II  
II. 주요 조사 결과

55명의 전문가 중 38명, '증세 필요하다'고 응답, 증세 우선순위는 '법인세'

1 | 증세 필요 여부

- 전체 55명 전문가 중 38명(69.1%)은 세율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는 17명(30.9%)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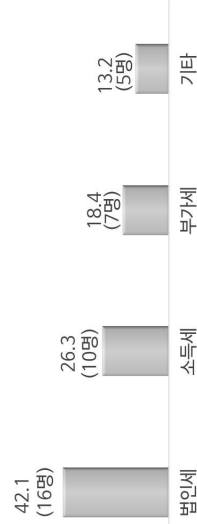
I 증세 필요 여부 (n=55) (단위 : %)



2 | 증세 가능 우선순위

-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명의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증세 가능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가장 많이 꼽음(16명, 42.1%)
- 다음으로는 '소득세(10명, 26.3%)', '부가세(7명, 18.4%)', '기타(5명, 13.2%)'의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주세 등 외부성 관련 세금', '에너지 환경세', '재산세', '부유세', '사회보장세' 등이 응답됨

I 증세 가능 우선순위 - 1순위 (n=38) (단위 : %)



7. 2017년 예산 편성 기조 방향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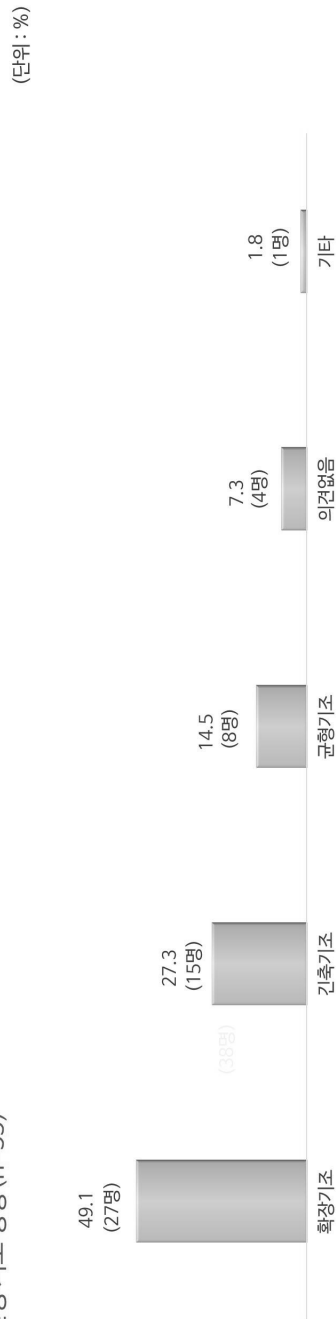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 55명의 전문가 중 27명은 '확장기조', 15명은 '긴축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 I 예산 편성 기조 방향

- 전체 55명의 전문가 중 27명(49.1%)이 '확장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긴축기조' 응답은 15명(27.3%), '균형기조' 8명(14.5%), '의견 없음' 4명(7.3%), '기타' 1명(1.8%)의 순임
- 기타 의견은 '기조 방향 선정에 앞서 예산 활용 방법 관련 고민 선행 필요'임

I 예산 편성 기조 방향 (n=55)



# MEMO

[illegible]

# MEMO

[illegible]

#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from a notebook or ledger. It features a series of evenly spaced horizontal lines across its entire width, providing space for writing.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nd there are no margins, headers, or footers visible.

## MEMO

[illegible]